



2002년
6월 15일
제 46호

춘천성시신문

나 침 반

교회개신·복음·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윤철중 http://www.holycc.org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2동 373-90 (☎200-091)

성시화를 향한 직장인 정오예배

- 연합예배 10년, 금년부터 성시화 목요기도모임 주관 -

춘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박상운장로)는 정오예배위원회(위원장 진상운장로) 주관으로 직장인 복음화와 성시화, 회원들의 연합 및 신앙향상을 위하여 지난 10년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동부장로 교회에서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에 힘써오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드리는 정오예배는 춘천지역의 목사들이 차례로 말씀을 전하고 직장별로 사회와 기도, 특별찬양을 담당해 연합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동부교회(임신영 담임목사)에서는 예산을 마련하고 여신도들의 봉사를 통해

직장선교 회원들을 위해 중식을 제공하는 등 적극 후원하고 있다. 동 연합회는 춘천 성시화의 선봉에서 교회들과 다른 선교기관들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매월 정오예배와 성시화기도모임을 주관함으로 성시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정오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정오예배는 연합회 정오예배위원회가 주관하며 회원들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2시 10~50분 까지 예배드리고 각 직장으로 복귀해서 업무에 일해야

함으로 쉽지 않은 사역이다. 정인용, 한성욱, 김동환, 김영일, 진상운 위원장 등 많은 이들의 열심과 희생적인 봉사로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박상운 회장은 임기 중 모든 직장에 선교회를 설립하고 빛을 잃어가는 선교회를 대상으로 지도목사와 함께 순방할 계획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국 연합회가 주최하는 10월 찬양축제 참가 준비와 내년 3월 개최하는 열린찬양제에는 모든 교회와 선교기관, 군부대 병사들이 함께 참가하는 중보예배(합창, 중창, 기악, 무용, 성가 등)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의욕이 넘치고 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지난 72년 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 김준근 목사의 제안으로 C.C.C. 춘천지역 윤수길 간사가 집현호 목사(당시 춘천중앙감리교회)를 대표로 추대하고 청년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을 운영하면서 거리와 공중시설 청소 등 사회 참여 운동을 펼쳤으나 기성교회들의 방관으로 2~3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후 당시 동참했던 청년들에 의해 성경공부 클럽으로 변모하였고 침묵으로 일관한 듯 했으나 20여년 동안 꾸준히 싸워 퇴역은 결과, 92년 8월 2일 직장선교연합회와 기관단체 대표 성경공부클럽의 주도로 성시화를 위한 초교과 집회 및 예수행화사행단을 시작으로 표면화된 성시화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약의 발단이 되었으며 성시화 실무위원회를 구성, 직장선교연합회와 함께 성시화 운동을 꾸준히 지속해 오다가 96년 9월 성시화운동본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앞으로 교회와 함께 성시화 사역의 중심에 서서 열과성을 다해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확대회의

춘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박상운장로)는 지난 5월 15일 정오 시내 음식점에서 확대회의를 갖고 신임임원 소개 및 사업계획을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충환 목사는 직장선교연합회의 단합과 헌신을 강조하면서 금년 한해가 더욱 발전하기를 당부하였다. 회의에는 각 직장선교의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도 은혜스럽게 진행되었다.

[임원] ▲회장 박상운장로(춘천우계) ▲수석부회장 민경옥장로(농협강원지역본부) ▲부회장 김철수장로(춘천교회) ▲최형선장로(강원도청) ▲김영일 안수집사(한림대학교) ▲한성욱 안수집사(강원도경찰청) ▲홍주 조경화 안수집사(춘천중학교) ▲부총무 채동수

안수집사(춘천우계) ▲협동총무 양봉남안수집사(춘천시청) 지총서권사(농협강원지역본부) 박복신(한국은행) ▲서기 류승근안수집사(강원도청) ▲회계 홍달환(한국복지재단) ▲감사 진상운장로(강원대학교) 정철교집사(조흥은행강원본부) ▲성시화위원장 위재홍집사, 최일정 안수집사 ▲선교개척위원장 여규창장로, 정동준안수집사 ▲정오예배위원장 진상운장로, 김한기집사 ▲교육홍보위원장 허광집사, 박상운집사 ▲찬양체육위원장 김동환안수집사, 김근수집사 ▲통일대책위원장 김중관장로, 이종현집사 ▲생활질서위원장 신승석장로, 김영일장로 ▲사회봉사위원장 조대일안수집사, 김용인집사



제3회 춘천 성시화 중력전도대회 개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윤철중목사)는 오는 7월 5일(금)부터 8일(월)까지 3박4일간 춘천지역의 불신인, 휴식시인을 대상으로 가정, 직장, 거리전도를 실시한다. 대학생선교연합회의 1,000명의 훈련된 대학생들이 10명씩 조를 이뤄 100개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혼합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사역으로 중력전도를 통해 전교인 전도훈련의 기회를 마련하고 아울러 복음화 전파를 위한 교회부흥의

제기가 될 것이다. 금번 중력전도는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성시화본부가 주관하며 C.C.C.를 중심으로 춘천지역 대학생선교회 연합이 실행에 동참한다. 선교대회에 참가하는 교회들은 7월 5일(금) 오전 11시까지 춘천 대명로 12인승 승합차를 대기시켜 대학생 전도요원들을 각 교회로 수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도사역기간 동안 학생들의 식사와 숙소, 이동을 위한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전도지는 개교회별로 준비하고 노방전도, 개인전도를 위한 '4영리'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구입하여 기도제목을 미리 작성해서 전 교인이 정기적으로 기도드리고 노방전도시, 교인들과 함께 "확전도"를 실시하여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다. 교파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의 참여를 희망한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교회는: ①교회명 ②교단 ③담임목사명 ④주소 ⑤연락처(TEL, HP) ⑥교회설립연도 ⑦전도요원 초청인원수 ⑧전도할 지역분석 및 소전 ⑨구체적인 기도제목(사역 목표)을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 (접수마감 6월 20일경)
※254-5776 / FAX:241-2300
/E-mail:crusade97@hanmail.net
(춘천성시화총력전도대회 준비위원회)
▲후원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창수목사 부회장 임신영목사 박상택장로 총무 신재원목사 부총무 장기호장로 황병호장로 회계 김동원장로 부회계 김성욱장로 감사 조영호목사 임영일안수집사 서기 김지홍목사 부서기 조영준목사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윤철중목사 사무총장 조충환목사 이학규장로

제7회 홀리클럽 창립기념 예배

춘천 Holy Club(회장 허천장로)은 7월 초, 회원가족과 전국 각 클럽대표 국, 내외 귀빈 교제 지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제7주년 창립기념식 및 예배를 드리고 클럽 부흥 발전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교파를 초월한 장로들이 연합예배를 통해 하나된 앞에 영광드리고 장로의 신앙과 삶을 계집전하는 신앙향상의 시간을 가졌다.

장로연합회 순회예배 드려

춘천기독교장로교연합회(회장 박승택장로)는 6월 16일 오후 5시 중앙감리교회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 및 개교회 순회예배를 드렸다.

운영위원회의 예서는 앞으로 연합회

대표 전 천 일 안수집사

※ 현수막 샘플

춘천성시화 목요기도회
(매주 목 오후 7:30)

- 교회와 도시의 거름남을 위하여
- Cell기도, 1석 3조 기도운동

내외는 먼저 그와 나라와 그의 이름 구하(10:33)



*디자인/전남희 *전산시스템/엄홍열 *나염.사공/박승기 (Since 1978)

TEL.255 5722 / HP.017-377 5722 / FAX.256 5722
E-mail:1001design@hanmail.net namis@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번지 교회현수막 전문업체 천일디자인

교회현수막전문

천일디자인(기획)

http://www.chunill.com

★나염 ☆실사현수막 ☆깃발 ☆여객피★

실사현수막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원가로 제작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설

크리스찬 어린이 교육에 추가할 것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라는 이름하에 어린이 교육 훈련에 전력을 경주해 왔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뒤지고 그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대중문화의 빠른 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신앙교육, 인간교육의 욕구충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면면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과연 사회가 요구하는 전인교육 훈련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차세대 교회주인 육성 차원에서 매 주일 하계, 동계, 특별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의 임무를 완수한 것인가. 아니다. 신앙교육은 곧 전인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신앙교육일 것이다. 교회학교가 많은데도 청소년

문제 심각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신앙인을 양육하는 동시에 필요한 사회인을 육성하는데 실패를 기울여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겨야 하고 배양과 소유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이라면 오늘날보다 더 어려운 사회의 출현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인간교육 생활교육을 병행하여 필요한 사회인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순간 불만에도 질서를 지키고 겸손히 하나라도 합부로 버리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육성을 위한 실습훈련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교도소 10개 보다 교회하나 세우는 것이 바른 사회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서화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에 참여하는 신자를 가리켜 성서화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꾼이란 주인을 위해 내재있는 것을 가지고 부과된 임무수행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방관하거나 적당히 말로만 하는 자는 주인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될 수 없다. 자기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성서화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호천성신화를 위한 기도운동이 92년도부터 지속되고 있다. 성서화 지주의 계명화는 어렵지만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차례의 부활절 십자가 시가경전과 성서화 교회 전도활동을 통하여 교회와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기도운동의 동량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10대, 20대로 연령층이 넓어지고 있다. 십자가 행진의 구경꾼이던 어린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5월초부터 얼마와 함께 기도모임에 참여하는 초등학교생이 등장했다. 직장선교회와 홀리클럽 회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은 변화의 모습일 것이다. 성서화 일꾼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내재 있는 모든 것을 드러 봉사하는 것이 일꾼들의 특성이자, 전방 사역자를 직접적인 일꾼이라고 한다면 후방에서 협력하는 자를 간접 일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꾼들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서화 사역을 진행하신다. 매주 모여 기도하는 직접 일꾼들의 연령층이 40대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며 중보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직장, 사회 어디서나 기도로 복음적인 삶을 통해 일꾼 역할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생의 기도회 참석은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젊은 층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변성규 목사
호천성신교회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21세기 첫번째 월드컵 축제가 일본과 공동 개최된다는 사실에 많은 나라들이 놀랐다. 더욱 놀란것은 개최국이 첫번째 경기를 패한 적이 없다는 신화를 한국팀이 과연 지킬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폴란드를 2:0으로 이기자 이번이 생겼다고 놀라워하며 외신들이 바쁘게 보도하였다. 정말 기적의 한국팀이었다. 20세기 전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잔치가 있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출신 예수가 갈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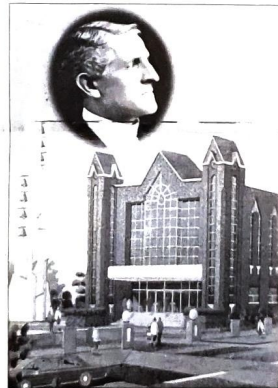
리 해변을 다니면서 선수들을 스카웃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전율이 돌기 시작하였다. 첫번째가 안드레요, 다음은 그의 형제 베드로였다. 다음날 그는 위치않고 다니면서 빌립을 만나 제자로 삼았다. 주님께서 선수를 선택하실 때 과거의 명성이나 혈연, 지연과는 상관없이 선택하셨다. "세 술을 한 부대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감히 기존의 틀에 벗어나 수술을 김도하는 의사처럼 메스를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택에 도전하지 못했다는 자들은 없었다. 자신의 하던 일을 떠나 즉시 그를 좇을 뿐이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할 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선수들을 조직해 나가셨다. 참 이스라엘의 특징은 간사함이 속에 없는 자들이었다. 전 후반 90분을 열세없이 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의 목숨 바치며 쉬지 않고 뛰어야 할 자들이었다. 참 이스라엘의 선수들이었다.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축제의 자리인 가나의 잔치 집에 처음으로 참가하

셨다. 그러나 축제가 한창 무리였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다. 포도주 없는 잔치집, 포도주 없는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포도주 없는 잔치집은 수치가 불행의 장소일 뿐이다. 하지만 남의 불행과 수치를 외면하실 주님이시라! 한 가정의 행복한 출발을 발목 잡고 있는 포도주를 위해 주님은 일하셨다. 어둠과 혼돈이라는 무질서 속에서도 시작 하였던 삼위의 하나님께서 갈릴리 작은 마을 가나에 찾아 오셔서 경멸과 수치와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정을 회복시키셨다. 돌할아리 여섯에 가득 채워진 물甕을 하 나님의 신이 걸어 다니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다. 기적이었다. 불행에 처한 가정의 위기를 구원하 시 주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불완전한 여섯 개의 돌할아리(금甕)를 성령의 생수로 채워 주님의 보혈(포도주)로 먹이시길 원하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로, 십자가의 생터에서 흘러내리는 포도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 영광을 받으 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시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 며, 그의 제자들은 주님을 믿었다. 참된 기적의 의미를 교훈하고 있 다. 참된 기적의 의미는 물리적 학 학적 질적 변화에 대한 경이감에 있 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믿 는 것이 참된 기적임을 깨달아야 한 다. 작은나사 대한민국에서 기적의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포도주가 떨어져 우추저 천상적 마실을 당해 서는 안되리라. 그 포도주가 무엇인 가? 천국복음에 대한 경이감에 있 지 않기에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메시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축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아구까지 물을 채우자!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한국감리교의 첫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

- 순교100주년 기념교회 원주에서 창립 -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의 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아펜젤러 기념교회 창립 및 봉헌 예배'가 지난 6월 11일 오후 5시 원주시 개운동 445번지에서 있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장광영목사와 동부연회 박성학목사를 비롯하여 전국 각 연회감독과 강원도내 각 지방감리사와 목회자 및 평신도 장로 등 500여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리고 감독회장의 인도로 2일간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펜젤러 기념교회' 담임목사직에는 감리교본부 사무국장 전용철목사가 파송되었으며, 시무장로로 전국감리교회 회장을 역임한 이기종 장로와 김충국 장로, 원익회장이 파송되었다. 아펜젤러 기념교회는 1885년 4월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국하여 선교 및 교육에 헌신한 아펜젤러목사가 1902년 5월 영성회협의회에 참석차 목포로 가던 중 군산알마타에서 신 박충동목사와 순직하여 그를 기리는 기념예배당을 동부연회(강원도) 원주에 창립하고 처음 입국한 인연 땅주도에는 선교기념교회를 창공한다. (아펜젤러목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인 배재학당을 세웠다)

※전용철 목사의 약력: 동원대학교총합 / 동부연회행정지방법관사 / 동부연회총무 / 감리교본부사무총장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 주신 건강비법

- 신비한 오줌(혈청)만큼 좋은 약은 없다 -



김동일 장로
(평화감리교회)

『지난 호에는 하나님이 성서를 통하여 주신 건강비법 즉, 오줌의 효과에 대하여 소개하였는 데 이번 호에는 오줌의 효능과 사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오줌오줌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오줌을 직접 먹으므로 자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데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질병이 있는 사람은 매일 두세차례 이상 마시는 것이 좋고 건강한 사람은 예방차원에서 소량 정도만 마셔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증환자는 오줌금식요법을 병행하므로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오줌으로 치료되는 질병

1) 당뇨병 2) 에이즈(AIDS) 3) 신장병 4) 백혈병 5) 심장병 6) 열병 7) 상

화 화상 8) 비만 9) 고혈압과 뇌졸중 10) 당뇨병 11) 피부병 12) 말초신경 13) 기타 질병(병, 암, 당뇨, 신장병, 혈청불순, 점액성대장염, 전립선비대증, 동통, 치통, 치조농루, 콧병, 귀질환, 황달, 녹내장, 배내장, 류마티즘, 기관지천식, 신장결핵, 류마티즘, 관절염, 변비, 발진, 눈병, 냉증, 혈액순환장애, 약물작용) ☆성기병은 세계 오줌학술대회에서 치료한지 1만 명을 보고자료임

☆오줌의 주요성분

1) 요소(urea) 2) 요산(uric acid) 3) 크레아티닌(creatinine) 4) 암모니아수 5) 히포산(hippuric acid) 6) 유로크롬(Urochrome)

☆이러한 물질들은 항산화작용, 건강작용, 항암작용 등 인체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 아미노산, 무기물, 탄수화물, 효소, 호르몬, 면역물질, 기타 생리활성물질 등 수많은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오줌의 치료 방법

1) 오줌마시기 2) 오줌마시기 3) 오줌

관장 4) 오줌금식 ☆오줌마시기 오줌요법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자신이 믿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듯이 자신의 오줌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수라는 확신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법이외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 오줌은 좋지 않다'는 기록이 있는데 중간 오줌만 그 자리에서 받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아침 첫 오줌에는 유용한 호르몬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사람이 하루동안 배설하는 오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오줌을 받는 용기는 50cc(작은잔)1정도로 하다가 익숙해지면 150-200cc(큰접시)정도로 늘린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첫번째 배설하는 오줌을 마시면 되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침 첫 오줌을 포 함해서 여러 번 마실수록 치료에 도움이 된다. 비위가 약해 오줌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사람은 한동안 유유나 커피, 주스를 먼저 마시다가 차츰 바꾸어 나가도

무방하다. 그리고 수용성 프로폴리스나 포도즙을 타서 마시면 오줌냄새도 사라지고 상습적음 인해 바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을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줌마시기(오줌금식) - 오줌은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오줌으로 마사지를 하면 피부의 부위를 재생시키는 효능이 있다. 오줌마시기는 오줌단식을 하는 동안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오줌요법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치료법이다. 오줌을 받아 마신 후 그 나머지 양을 화장실에 묻혀 얼굴, 목, 머리, 발등, 손뼉을 문지르고 약 20-30분 정도 있다가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면 되는데 적어도 4일이상 목한 오줌이 더 효과적이다. 오줌 자세에는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오줌을 담아둔 방안에 세균이 번식할 우려는 없다. 목한 오줌으로 마사지를 할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10분정도 오줌병을 담구어 두었다가 달맞게 데워지면 손바닥에 묻혀 이마부터 얼굴 전체를 마사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 영은은 심장을 향하여 움직이고 머리에서 아

랫부분으로 발끝까지 뒷부분을 향해 마사지 한다. 오줌요법은 잔잔이나 화상을 당했을 때 그 부위에 직접 습포해 주므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줌관장 - 오줌관장은 오줌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방법이다. 오줌을 항문에 넣으면 장기간에 고여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입으로 마시는 경우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 방법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치질환자이다. 실제로 치질, 탈출, 치루 등 중증환자들의 항문에 오줌을 넣어 치료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얻었다.

☆오줌금식 - 오줌금식이란 식사를 하지 않고 명상과 함께 오줌과 생수만으로 마시는 방법과 생식을 금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입주일에 단 하루만의 금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금식요법은 전문가의 지도하에 마약가정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오줌으로 만드는 방법 - 맛이 좋은 오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수시로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면 오줌이 맑고 농축되지 마시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육고기 보다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을 많이 먹고 되도록 맵거나 현유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물맛은 맑아 사람들의 몸은 성장하면서 영양의 불균형,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들이 쌓여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오줌은 이렇게 흐트러진 몸의 대사를 조절하여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줌을 입으로 마시면 오줌의 미량성분이 몸을 통과하면서 세포에 감지되는데 그 정보가 뇌에 전달되어 면역계와 자연치유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줌요법이다. 이 오줌요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입으로 마시는 것만 따라 명령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때, 난치병이든 불치병이든 고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오줌요법은 무슨 요법이란 건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월에 걸쳐 소개한 이 오줌요법은 부산 수영로교회 안수집사님 김용태 박사께서 직접 집필한 '오줌요법'으로 당뇨, 알, 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란 책자에서 본인이 직접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환자들을 위하여 기사화한 것을 밝히는 바이다. 김용태 박사께서는 '세계오줌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오줌 생체내 치료법을 원하신다면 ☎ 243-5885 H.P.018-600-5437(성신신문 명예기자단장 김동일장로)로 연락하십시오.

조상이 후손(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명규 장로
석사감리교회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중경회장

모세는 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였습니 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습니 다.

【달두드에 소개된 모세는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세가지 부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한 남자가 돈주머니를 잃은 것을 하나님은 묵인하셨습니다. 둘째,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돈주머니를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묵인하셨습니다. 셋째,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은 남자가 살해당하는 것을 묵인하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돈주머니를 잃은 남자는 살인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여!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한 일에 그릇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일에 깨달음이 있음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내게 가르쳐 주마. 돈주머니를 잃은 남자는 성실한 남자인지는 하나 그 돈은 그의 아버지가 훔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잃어버린 남자는 돈주머니를 주운 남자의 아버지였다. 죽음을 당한 남자는 아주 먼 옛날의 일이지만 지금 그를 죽인 남자의 형을 죽인 일이 있다. 그때 중언이 없어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으로 하여금 원수를 갚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때로 악인이 성하고 바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 조상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구약: ①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후손들에게 적용됨 (창13: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창22:32) ②세대의 연속 (신1:2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을 때부터 너희의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대로 돌라

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지하지 말라 한즉 (레25: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군이 될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군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115:14)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약: (눅1:72-73) 우리 조상을 공경하 여주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행3:25) 너희는 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보다 더 나은 새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나) 조상이 후손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

※구약: (창20:5) 그것들에게 철저히 말며 그것들을 삼키지 말라. 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 이방으로 삼아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신5:9, 14-18) (레5:7)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있었거니와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사37:38)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은 결국 끊어질 것이나

※신약: (행7:19) 그가 우리 족속에 계 계제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함에 (마23:31-32) 그러면 너희가 신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다) 축복의 결실들

① 죄 및 죄악의 결과는 단지 개인의 책임이다. (렘31:29-30)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버지 신도도 주를 믿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사다하지 아니하였고 신도들을 먹는 자라도 그 아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②은혜시대의 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골4:4-5)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율법 아래 내가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골5: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③ 신자들은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이미 완전히 해방되었다. (고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런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약2:19-20)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니 줄을 믿나니, 질하는 도다 기신들도 믿고 따르나니 이와 한탄 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임을 알고자 하나니 ④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평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상의 단상

용욱이의 예수사랑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예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는 별집에 살아요. 별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돌더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 두에 1234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서는 순회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척하잖아 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욱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2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할데 두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고요 말예요.

아빠는 청송고도스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잘 가는데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약강해를 주는데 도시간 못 싸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들만지들아 때 때대었어....' 같이 죽어버리지'고 하실텐가 말예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 하면서 온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저를 엄마라고 술집까지 부르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 술 먹고 주창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는 모습으로 '용욱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천재란 두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내면서 '후. 구원만 받아서 사나 하시면서... 김주님! 전세금 50만원인데 월세 3만원원을 더 돌려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 만만원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고도 해도 만났겠다'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뻐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갔다 집에 올 때도 물레 교회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일어난서 우리 글짓기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 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호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기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제를 태신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회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 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사이다 한병을 사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면 약주라도 한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다섯권을 놓고 돌아 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잠깐 졸았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한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피노키오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었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잠깐 놀라시며 '제상에 이럴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도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 할머나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욱이도 편히 따라 올면서 '오빠 그림 우리 여기서! 안?커 나구 여기서 계속 사는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일게 하시고 나신 거예요. 대대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술방울만 대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게도 또 같이 죽자고 하던 여짜나 집을 먹고 있던 '용욱이'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주신 돈을 꼭 갚아 드린다고 말이지'라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화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운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은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 용욱이 올림 -

(이 글은 초등학교 3학년 용욱이의 글입니다.)

(adonairou@hanmail.net)

붉은 악마



정경호 목사
춘천.C.C.C. 대표

한일 월드컵 경기가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나로 달구고 있다.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첫 승을 거두고 미국과는 1:1로 비김으로 포루투갈과의 마지막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끝인물 목욕도 맘을 풀리며 최선을 다해 공을 찼다. 이번 월드컵에서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하게 된 사건은 당연히 경기내용보다 붉은 악마의 응원전이다. 붉은 유니폼으로 수만명이 북가를 통일하고 얼굴에는 태극무늬를 비롯해 악마의 표기인 행상을 세팅하여 대-한국군, 필승코리아를 외치며 상대방 선수를 위협적으로 압도했다. 경기장내에서는 대형 태극기의 물결과 인간 카도타기, 서울 시청광장과 광화문 네거리의 붉은 물결을 이룬 100만명의 강과 응원전은 장관을 이루었다. 월드컵의 열광이 4500만 국민의 가슴 가슴마다 가득하여 온 땅을 뒤덮은 느낌이다. 국민들의 생각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분출한 중심에는 붉은 악마가 자리잡고 있다. 붉은 악마의 위력은 대단했다. 응원전에 참가한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도 모두 재미있고 흥분케 하는 집단 최면술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응원팀의 이름이 적당하냐에 대한 찬반은 생명이 있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응원팀의 이름을 두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면 악마라는 이름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부 거침없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악마가 자연스런 용어가 되었고 우상이 되었다.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었다. 붉은 악마를 다시 생각하자. 우리 국민을 대표한 선수들이 악마의 용원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악마의 지휘에 온 국민이 움직여야 되겠는가?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다. 악마는 상대방을 저주하고 깎아 내려서 내가 잘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좋은 이름들이 많다. 푸른 천사, 노란 천사, 하얀 천사, 동등 악마보다 훨씬 좋은 이름이다. 기독교인들은 온 국민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원해야 할 것이다. 월드컵 16강 진출은 온 국민의 열망이다. 지역, 계층, 남녀 노유가 하나되는 경기. 국운 융성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형편은 그 꼴 좋지 않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기능이 국회의장을 뽑지 못함으로 마비상태에 있다. 대통령은 당을 탈당함으로써 국가 통제능력이 많이 약화된 느낌이다. 이번 축구에서 허당 감독의 지도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는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산 교훈이다. 축구 감독은 국에서 돈을 주고 빌려오면 된다. 그러나 시장, 군수, 대통령을 빌려 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나라가 잘 되려면 국가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지방이 잘되면 지방의 기관장을 잘 뽑아야 한다. 이는 모두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게 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는 투표장터에서 사상 최악으로 낮아진 것을 염려하고 있다. 1달간의 축구가 끝나면 모든 국민들은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온 국민들은 자기 사명에서 국가 대표 선수들처럼 정신을 다해야 한다.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세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의 좋은 군사의 삶이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고 모험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삶이다. 둘째는 경기하는 선수의 삶이다. 선수들은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세계 최강 프랑스가 16강 탈락이 결정되었.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법을 어긴 선수가 퇴장당함으로 10명의 선수수가 되었지만 결국 패하게 되었다.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의 삶이다(딤후2:3-6). 이는 모두 멈추려는 수고의 삶이 특징이다. 감독과 선수와 관중이 하나되어 응원한 것처럼 우리 민족은 최정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길 소망하는 바이다.

레크리에이션

"남이하면 도박 내가하면 오락"



정진원 장로
한국기독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강원지부 명예회장

'고스톱 이죽대다 큰 코 다칩니다.' '설 연휴 때 화투는 집에서 가족과 친구들 끼리 즐겨라' 최근 역대 주부도박단과 함께 농민들을 울리는 원정 도박단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도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세명만 모이면 판을 벌리는 도박이 오락이나 아니냐. 도박이 나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경찰은 관세사 판돈이 10만원이 넘거나 사무원 등 직업이 아닌 곳에서 벌리는 화투판은 도박판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12상황실로 도박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판돈에 상관없이 도박혐의로 입건하고 있다. 결국 1인당 2만5천원씩 판돈을 갖고 가족이 아닌 4명이 사무원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을 때 누군가가 112상황실에 신고하면 도박혐의로 입건된다. 실제로 2002년 1월 춘천시 의동동 K랜드 사무원에서 도박을 하던 김모(31·춘천시 후평동)씨 등 3명의 경우 판돈이 60여만원이었던 도박혐의로 경찰에 붙수고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소액으로 친목을 다지거나 재미를 위해 화투를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도박으로 간주될 우려가 높다"며 "오락과 도박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은 명절 놀이 문화가 부족해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온가족이 즐기기 쉬운 놀이문화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2.2.8.강원일보 신형철기자) 주부 도박 21명 체포: 속초경찰서는 2월4일 민원집에서 3,300여만원의 판돈을 놓고 속초 뒷리조트 도박을 한 혐의로 박모(47·속초시 기동동) 등 주부 도박단 21명을 긴급 체포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4시에 부부 밤 10시까지 속초시 대포동 관내 K빈칸에서 화투 20대를 이용해 1회 3만원부터 수 백만원까지 판돈을 거는 등 총 100여회에 걸쳐 속출 도박 2명(중년)이라는 도박을 한 혐의이다. 일부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기강을 파괴하면서까지 생행하고 있는 망국병 도박이 언제나 없어질까.

